

강진군, 도시민 인구유입 위해 '온 힘'

빈집 리모델링·신규마을 조성 사업 박차 강진원 군수, 현장 곳곳 일일이 찾아 점검 발 빠른 귀농정책으로 입주·귀촌문의 쇄도



강진군이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기반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 14일 강진읍, 작천면 빈집 리모델링 사업 현장을 잇따라 직접 방문해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신규마을 조성과 더불어 민선8기 신 강진시대의 핵심 목표인 강진 인구 5만명 달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군에 임대하면 5년 임대시 5,000만원, 7년 임대시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에서 직접 리모델링하고, 전입 예정인 관외거주자가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전입하면 공사비의

50%, 최대 3,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매매 의사가 있는 빈집을 군에서 매입해 철거 후 모듈러 주택을 신축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은 120건에 달하며 리모델링 주택 입주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입주 문의는 하루 평균 5~6건으로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김 모씨는 강진에서 살아보기 푸소 한달 체험 후 강진군으로 귀농해서 두툼을 키우고 싶으며 리모델링 빈집 입주에 대해 문의했다.

또한 오랫동안 미국생활을 했다는 한 상담자는 뱃속의 아이를 포함해 7명의 가족이 귀촌

을 희망하며 육아수당 등 인구정책이 너무 좋아서 빨리 이주하고 싶다고 말했다.

빈집 리모델링은 창호 및 도배·장판부터 방수·단열작업, 배수 시설 개선까지 포괄적인 주택 개보수 공사로 진행된다.

현재 55개소가 설계 및 공사중이며 지난 6월 1차로 27가구가 선정됐고 오는 25일 2차 강진군 빈집 리모델링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21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빈집은 실시설계 및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농산어촌 유학과 연계해 입주민을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추후 공실이 생기면 일반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신규마을을 조성사업 역시 활발하게 추진한다. 강진읍 임천저수지 주변으로 150세대 규모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임천지구는 지난 4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돼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특히 강진읍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과 배산임수의 완벽한 입지조건으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읍천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20개 신규마을을 발굴했고 약 550세대의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더불어 주택을 신축하는 전입 세대에게 최대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 신축 지원사업까지 더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소멸의 위기를 벗어나고 도시민 유치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함께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군민들과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및 신규마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농어촌개발추진단(061-430-53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해외비전캠프 운영 "글로벌 인재 키운다"

10월 8일 ~ 10월 17일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 탐방

장흥군은 13일 장흥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2023년 장흥군 고등학생 해외비전캠프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고등학생 해외비전캠프 참가학생 30명과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 군수는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시행하는 해외비전캠프의 취지와 일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

올해 해외비전캠프는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미동부지역의 하버드대, 예일대, MIT대학, 콜롬비아대학을 탐방하는 일정이다.

방문 대학에서는 한국인 유학생과의 만남, 현지 로드 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할 예정이다.

뉴욕, 보스턴, 워싱턴 등 주요 도시문화 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는 기회도 마련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4년 만에 다시 시행하는 해외비전캠프가 장흥의 미래 인재들에게 글로벌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인재육성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완도군, 해양치유 연계 숙박시설 투자 유치 팸투어

대규모 숙박시설 건설로 관광객 1천만 시대 도약

완도군은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숙박시설 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 호텔 투자사와 운영사 등 관계자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진행했다.

군은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 본격 운영을 앞두고 치유 관광객이 대거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웰니스 관광도시 건설로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대규모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팸투어를 마련했다.

팸투어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롯데호텔, 이랜드파크 등의 운영사와 유전자산업용, 캐피탈랜드 등의 투자 금융사, 에이치피엘파트너스, 오륜산업개발 등 개발사, 건축사, 회계법인사, 호텔 디자인사 등 분야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했다.

팸투어 참가자들은 신지 명사십리, 완도읍 과수연구소, 청산도 등 투자 대상지에 대한 투자 여건을 확인하고 완도군의 투자 환경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

는 해양치유센터 공사 현장을 방문해 시설들을 둘러봤다. 특히 신우철 군수가 군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과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국립해양수산물관 건립, 웰니스 해양관광 도시 육성,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 현안과 투자 여건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투자를 적극 제안했다.

팸투어 참가자는 "이번 투어를 통해 완도의 매력과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면서 "해양치유산업 등 완도의 장점을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팸투어가 주요 기업 및 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완도의 차별화된 투자 환경 등을 적극 홍보해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군,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 추천·접수

교육·관광·복지 등 5개 부문 10월 4일까지 신청...11월 1일 군민의 날 시상

진도군이 지역을 빛낸 군민의 상 후보자를 추천·접수 받는다.

군은 오는 11월 1일 개최되는 제48회 진도군민의 날을 맞아 '진도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를 오는 10월 4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개발과 복리증진에 기여해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개인 또는 단체이다.

이번 군민의 상은 ▲공공복리 ▲교육·체육 ▲관광·문화예술 ▲복지·환경 ▲지역개발 등 5개 부문으로 부문별 1명씩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는 오는 10월 중 엄중한 선정절차를 거쳐 '군민의 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제48회 진도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군민의 상 후보자 추천자는 읍·면장과 기관·단체의 장이며,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서류는 읍·면에서 교부받거나 진도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갖춰 진도군 총무과 서무팀(문의 061-540-3236)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도군 총무과 관계자는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화합 등의 공적으로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개인과 단체 등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민의 상은 군의 명예를 선양했거나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사람에게 시상하며, 역대 수상자는 지난해 수상한 허정무 대전시티즌 이사장과 독립운동가故而 박중협을 포함해 총 29명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